

# 이번엔 '달러 패닉'... 불안 심리 잠재워라

환율이 3거래일 새 140원 이상 폭등하면서 외환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에 빠졌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외화유동성 부족과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하루 50원씩 폭등하고 있어 시장 내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1,500원대를 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환율 폭등... 기업·은행·개인 너도나도 사재기

### 전문가들 "공포감 계속땐 1500원대 치솟을 수도"

◇ 외환시장 패닉 - 달러 사재기, 1,500원 가나 =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폭주하고 있다.

국내 기업, 은행, 개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격차에 불문하고 달러 사재기나 나서고 있다.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출 기업이나 은행마저 달러를 쓸어 놓고 풀지 않으면서 환율 폭등과 외화유동성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대외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1,500원을 향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화 공급이 부족한 데다 외환당국도 외국 환형기금(외평가금) 적자 문제와 수출 중소기업, 외화자금시장 지원 등으로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개입을 자제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공포감이 진정되거나 않는 한 환율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어 1,500원까지



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해 가용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며 "현재 달러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미국의 구제금융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불안심리 해소가 관건... "변동폭 제한 등 검토 해야" = 그러나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국에 달하면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단기 폭등하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원화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걸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심리를 다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국내외 요인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달러화 매도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을 통한 달러 차입을 늘려 수급 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유동성 문제, 대처 가능한 상황"

### 과거와 달라... 환란 가능성 없다"

#### 한총리 주재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7일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에 따른 국내 경제불안 상황과 관련, "외환보유고와 외채 등을 감안할 때 외환유동성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과거 외환위기와 다른데 아니라 외환위기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거시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총리 외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외환시장 급변동에 대해 "지금 대외여건에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시장 참가자

들은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또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는 등 외환수급 사정도 개선될 전망"이라며 "필요하다면 감독 당국은 외환시장 꽤 꾸요인을 점검하는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는 통상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에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한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며 위기 가능성은 일축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송도 컨벤시아 개관 기념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워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KDI "금융 위기 확산... 경기 둔화 심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0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8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월의 8.6%에 비해 크게 낮은 1.9%에 머물렀으며 조업일수 조정지수도 전월의 6.1%보다 낮은 4.3%에 그쳐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도 1.6% 증가에 그쳐 전월의 3.9%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생산·재고 순환은 재고 증가세가 다

소둔화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8월 경기 종합지수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8월 소비재판매액지수는 내구재 판매둔화로 1.5% 증가에 머물면서 전월(3.9%)보다 하락했고 소비자출하지수 증가율 역시 -0.2%를 나타내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개인 주식자산 100조원 날렸다

### 올 3분기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도액 38조원에 달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산에서만 100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투자자나 나선 개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62조7천59억원이나 줄었고, 국내와 해외 공동 주식형펀드에서 41조5천311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관련 자산이 104조2천37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 말 266조960억원이었으나 9월말엔 203조3천901억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무더기로 처분한 탓에 주식 순매도액이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최고치인 3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올해 9월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한 주식은 37조8천186억원으로 작년 연간 순매도액 30조5천608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연도별 기준 최대치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 1위안당 200원 돌파 中 교포들 "못살겠다"

#### 귀국 러시·기러기 아빠 속출

원화가치 급락으로 환율이 1위안당 200원을 돌파함으로써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안화 대·원화 환율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매기준을 기준으로 1위안당 125원 안팎이었으나 7일 현재 190원까지 치솟았고 현찰을 살 때의 환율은 209원으로 200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원화로 100만원을 송금받으면 7천

5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4천800위안도 안 되는 둔밖에 위치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환율 소폭 탓에 상당수 교민은 더는 중국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며 귀국을 서두르고 있고 비자 문제 때문에 일시 귀국했던 유학생들은 중국으로 돌아오는 일을 포기하는 경 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입기를 마쳐야 하는 기업 주재원들은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녀와 아내를 귀국시키고 혼자 기러기 아빠로 지내야 할 형편이 됐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케리어아시아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타이어광주공장 품질관리과 사무보조과	고졸/경력3년	1200~1400	10/08	062-515-0026	
금호생명 광주본부	영업관리 경력직 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0/10	062-350-3052
Z.D	타이어모형 프로그램 및 기계조작원(반자동화)-5족CNC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0	062-720-7881
㈜동천미디어	구성작가, 광고디자이너, 광고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1	062-224-5401
사프정밀	금형 부품 가공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14	062-956-4900
삼성생명	기업보험 전문컨설턴트 모집 [목포법인지점]	초대졸/경력무관	3400~3600	10/14	061-284-3345
K.T.C	SK텔레콤 상담 내근직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716-0142
흥국금융화재	[주]일근무/내근직/본사지영 남녀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410-1416
(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	검사직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5	062-369-0790
(주)남원	전기기기 시장관리자 채용(중국어 가능자 우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225-9181
동명산업(정보주)	CAD업무 및 인테리어(설내건축)관련 분야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16	062-672-8000
(주)성우	도모설계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16	062-513-9093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코스피 '나흘로 상승'

### 연쇄 폭락 글로벌 증시와 엇박자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의 연쇄 폭락으로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반등함으로써 글로벌증시와 다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다우지수 13,000선이 붕괴하는 등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4% 가량 급락하고 유럽 주요증시가 7~9% 폭락하는가 하면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닛케이지수가 3.03% 급락하고 오후 3시20분 현재 행정부 지수 -4.97%, 상하이종합지수 -1.02% 등으로 경쟁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폭 반등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증시가 연속 폭락한 후 반등할 때가 됐다는 기대감과 정부의 증시 안정대책, 미국 등 선진국 동반 금리 인하, 수출기업들의 실적개선 등이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 다우지수의 경우 6일(현지시각) 장중 낙폭이 800포인트를 넘었으나 장 후반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는 게 증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증시 안정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 훈련을 진정시키겠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자산운용업체 사장단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펀드내 주식매도 자제와 투자자들의 환매 자체를 설득하기로 해 정부 시장안정 의지에 호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테크 투자자 '대박'

### 환율 급등... 막대한 시세 차익

최근 금값과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금테크(은행을 통한 금 관련 상품 매매) 투자자들이 힘겹게 웃을 것 같았다.

국제 금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데다 환율이 두 달 새 260원 폭등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금적립계좌 방식 '원 클래스 골드뱅킹'의 시세는 6일 현재 3만4천420.43원으로 8월13일보다 6천861.61원 상승했다.

최근 두 달간 수익률은 24.9%에 달하고 있다.